

코

전 PC업체 주연테크는 최근 들어 부쩍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여타 전문 PC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연테크만은 여전히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으니 세간의 관심이 쏠릴 만도 하다.

“마치 PC산업 자체가 위기를 맞은 것처럼 이야기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PC시장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졌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최후까지 살아남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주연테크 송시문 대표는 오히려 자신감을 표명했다. 앞으로도 컴퓨터의 수요는 연 300만대 이하로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수요의 감소나 산업의 위기 때문에 PC업체들이 도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얼마큼 경영능력을 발휘했느냐가 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한다.

PC강국을 만들어 가는 작은 거인

주연테크는 1992년 창업 이래 한 해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 은행 부채나 어음발행도 없이 건실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IMF 시절 컴퓨터의 수요가 줄었을 때조차도 주연테크만은 성장세를 유지했을 정도로 송대표의 탁월한 경영능력은 두각을 나타낸다.

올해 매출 목표인 3000억~4000억 가운데 지난 1/4분기에 이미 900억을 달성한 주연테크는 매우 고무된 상태다. 2/4분기에는 데스크탑 소비자 판매부문에서 삼성에 이어 2위에 등극했다. LG, HP 등 경쟁한 기업들을 제친 쾌거이다.

이 같은 고성장의 비결로 첫손에 꼽는 것은 가격대비 우수한 품질이다. 컴퓨터는 매우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몇 가지의 주요부품으로 이루어진다. 즉 부품의 품질이 컴퓨터의 성능을 판가름하는 것이다. 주연테크는 세계 최고기업들의 명품만을 엄선해 컴퓨터를 제조함으로써 탁월한 안정성과 완벽한 호환성을 구현했을 뿐 아니라, 타사의 동일 사양 컴퓨터보다 비쌀 경우 차액만큼 환불하겠다는 호언장담까지 내걸었다. 이러한 자신감이 바로 주연테크의 성장을 가속화시킨 요소라고 하겠다. 더불어 업계 최초로 부품실명제를 도입해 마니아층의 확실한 지지를 얻었음은 물론, 입소문 효과까지 톡톡히 누리고 있는 중이다.

AS에 주력하는 것도 주연이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다. 대기업이 아니면 제대로 AS를 받을 수 없다는 편견을 불식시킨 주연테크의 AS는 소비자의 신뢰를 쌓기에 충분했다. 지금도 전국 750개 전문대리점과 85개 AS센터를 통해 고객 존중의 신뢰경영

을 실천하고 있다.

송대표는 머지않아 1인 1PC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견한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새 것을 구입하는 소비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타인과의 공유가 꺼려지는 컴퓨터의 기능적 특성이 맞물려 신규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 300~400만대의 수요는 거뜬히 발생할 것이고, 기업의 업무용 컴퓨터 수요까지 따져 본다면 시장은 더욱 커지리라는 전망이다. 결국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한 주연테크에게는 더 큰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 부럽지 않은 주연마인드

경영학을 전공한 송대표는 졸업을 앞두고 창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했다. 수차례 시장조사 끝에 컴퓨터 산업이 유망하리라는 결론을 내리고, 컴퓨터 제조업에 뛰어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경영철학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그는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환점에서 있다.

무엇보다 송대표는 인사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그는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편이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능력이 학력보다 우월하다는 소신을 갖고 사람중심 경영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기업문화 덕에 장기 근속하는 사원의 비율이 높고, 회사 측에서도 그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다. 이는 자연스럽게 ‘의리와 믿음’이라는 산물을 낳아 주연테크를 든든하게 지탱해 주고 있다.

주연테크의 직원 가운데 단 한 명도 계약직 사원이 없다는 사실 역시 송대표의 경영마인드를 여실히 보여준다. 생산직 근로자, 콜센터 직원, AS 담당자까지 모두 본사에 소속된 정직원들로, 이는 모든 직원이 주연테크의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송대표의 고집이 작용한 결과이다. 올해부터는 고정이익을 제외한 초과분의 일부를 직원들에게 배분하는 ‘특별성과급제’를 시행키로 해 업계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직원들의 단합을 도모한다는 취지대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장점유율을 꾸준히 늘려 가는 것이 주연의 비전입니다. 좀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고 PC강국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컴퓨터 전문기업이라는 명예로운 자리에 오르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공정거래와 경쟁을 바탕으로 기업운리를 실천하고 있는 주연테크의 선전은 벤처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연테크에게 주연마인드가 있는 한 이들이 가진 비전은 머지않아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PC강국을 이루어내기 위해 오늘도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는 주연테크와 송시문 대표의 굳은 의지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컴퓨터 전문가들이 엮어내는 PC강국

컴퓨터 제조업체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주연테크. 14년 연속 흑자행진을 기록하며 최근 당당히 시장점유율 2위로 올라선 위풍당당한 기세가 주목을 받고 있다. 컴퓨터 업계의 주연(主演)을 꿈꾸는 주연테크의 송시몬 대표가 들려주는 솔직담백한 이야기로 초대한다.

주 연 테 크 _ 송 시 몬 대 표

주연테크 '운수대통V'로 인기몰이

'운수대통V'는 국내 최저수준의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야심차게 선보인 주연테크의 주력모델이다. 인텔 펜티엄4 프로세서 3.0GHz, ATI '라데온 9250' 칩셋 그래픽카드, 512MB DDR메모리, 160GB 하드디스크(HDD), DVD/CD-RW 콤보드라이브 등을 탑재해 탄탄한 성능을 자랑한다. 폭 13.5cm의 슬림형 케이스를 채택해 디자인이 콤팩트하고 세련됐으며, PC 내부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속도가 조절되는 저소음 CPU쿨러를 장착해 쿨링팬 소음발생도 최소화했다. 여기에 17인치 LCD 모니터, 부가세, 설치비까지 포함한 가격이 99만원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